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3

주 제:	“한 알의 밀알”	“사순 제 5 주일”	2009년 3월 29일
복음 묵상:	[요한 12,20-33]	[예레 31,31-34]	[히브 5,7-9]

햇빛, 공기, 맑은 물, 사는 땅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 곧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인을 향해 충성스런 노예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며 섬기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비전을 바라보며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섬김 받았다고 힘겨루기를 일삼는 세상의 자세를 버리고 반대로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먼저 남을 섬기는 자세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시던 그 순간뿐 아니라 오늘도 작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헌신과 섬김이 따를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섬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지극하면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참사랑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섬김으로써 남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 자신이 참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비밀의 하나일 것입니다.

정애경 수녀(울리베따노 성베네딕도수녀회)

◆ 성령운동의 목적

성령쇄신운동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롭고 충만한 생활로 발전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생활에 대한 쇄신을 도모합니다.



◆ 예언 말씀.

†역지로 있는 두 손을 펴십시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내가 채워 주는 것으로 다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이곳에 와서 함께 머물고 기도하십시오.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항상 내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여라. 두려워 하지마라. 너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들어 주겠다.

† 나의 자녀들이여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자녀들이여 저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같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겸손된 자세로 아버지 하느님께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갈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즐겨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미움을 버리고 갈등을 버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청하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즐겨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베싸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 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1분 명상

♡ **참된 단식** ♡

(장재봉 신부님)



단식을 그저 한 끼니를 굶고
하루 동안 먹거리를 굶는 일로 여긴다면
단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한참 어긋나고
단식을 권하는 교회의 가르침에도 모자랍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일
상대가 틀린 것이라고 우긴 일을 반성한다면
참된 단식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치워내는 일이니까요.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을
서운해 하던 감정을 씻어낸다면 옳은 단식입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이니까요.

미워했던 상대에게 사과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단식입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위를 고치는 모습이니까요,
나아가
평소에 너르지 못한 자신의 성정을 돌아보고
기쁘지 않을 때마저도 언짢은 사람에게도
먼저 무조건 웃어 보이리라 다짐한다면
정말 귀한 단식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1 코린 8.3)."